매일 하나님으로 마수걸이하기

(시편 147:1~20)

1.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2.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3.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4.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매일 하나님으로 마수걸이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매일 하나님으로 마수걸이하기'

요즘은 스포츠에서도 마수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나 축구에서 첫 번째 홈런이나 골이 나오면 마수걸이라고 합니다. 낚시에서도 처음으로 월척을 낚으면 마수걸이라고 합니다. 본래 마수걸이는 장사하는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물건을 판 대금을 일컫습니다. 이 마수걸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 첫 번째로 물건을 사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아침 일찍 여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관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주부들이 물건 고르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인 탓도 있습니다.

요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마수걸이를 많이 신경 썼습니다. 마수걸이가 시원찮으면 그날 장사가 안 되는 징조로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잘생긴 총각이 와서 부르는 대로 깍지도 않고 물건을 척척 사면 마수걸이가 잘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돈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침을 뱉은 다음에 다른 손으로 그걸 탁 칩니다. 혹은 하늘을 향해서 돈을 쳐들고는 침을 뱉거나 이마에 탁 붙입니다. 그리고서야 돈을 전대에 집어넣습니다. 마수걸이는 한낱 미신에 불과하기에 마수걸이가 안 된 날도 장사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의 영역에서만은 이 마수걸이에 의해서 하루가 좌우된다는 것이 미신이 아닙니다. 하루의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자체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듯이 우리들의 삶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때에 관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마수걸이의 중요성은 치명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선민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으로 마수걸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관계의 마수걸이하는 자가 선민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본 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선민들은 이어서 성벽을 재건하려 하였으나 방해를 받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포로귀환이 시작된 것이 BC.586년인데 무려 90여년이 지난 BC.444년에야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단계에서 이 시가 지어졌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거의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선민의 삶이 회복이 되는데, 포로생활을 경험한 뒤에 느끼는 선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선민은 매일아침 하나님으로 관계의 마수걸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3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선민의 회복을 묶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없이는 선민의 회복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성전과 성벽이 상징하는 것이 없었기에 이것이 선민을 특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마수걸이의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매일아침 성전을 통해 하나님 마수걸이를 하지 않으면 선민이 아닌 셈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수걸이하지 않으면 선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수걸이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4절에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마수걸이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세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선민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습니다. 그런데 별처럼 많은 선민들을 하나님은 오직 일대일로 관계하십니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이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선민들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을 때에도 그 곳에서 흩어져 살

고 있었습니다. 칠십 년 만에 포로귀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땅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까지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선민으로써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각자가 하나님과 괄호로 묶인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관계의 대상으로 관계하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묶인 상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대상이신 하나님과 괄호로 묶였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묶인 상태로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관계하는 첫 번째 대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안에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형님이 두 분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제일 큰 형님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신촌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그때에 연희동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녁마다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어서 둘째 형이 진학하고 서교동에서 과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큰 형처럼 도시락을 싸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중국집에 이야기를 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인 저는 과외도 없었고 도시락도 없었고 자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힘에 부쳤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들일 수 있는 힘이 점점 차이 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다른 예로 살펴봅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오빠들이 동생이었던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될 사람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오빠들이 이북 사람과 결혼시킬 수 없다고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첫 눈에 반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첫 번째였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예화와 두 번째 예화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첫 번째로 삼아서 결혼하자 이후의 모든 일들은 첫 번째 관계의 대상인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동반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에게 가장 관심을 쏟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이 되신다는 것은 삼형제의 예가 아닌 어머니와 아버지의 예와 같습니다.
5절에서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상번제가 드려짐을 기억하며 마음을 비추어봅니다. 내 마음의 첫 번째 대상이 돈이었다면 그러한

나를 어린 양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돈이 마수걸이가 되어버린 나를 죽이고,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수걸이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대상에서 하나님을 마수걸이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선민의 마음은 하나님과 묶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첫 번째 대상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반자 관계가 되면 그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로 묶여서 처리해나가게 됩니다. 선민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러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능력이 하나로 묶이듯이, 선민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민들에게 마수걸이는 중요했습니다.

속담에 "여자팔자 뒤웅박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를 남편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 마수걸이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남편이시고 첫 번째 관계의 대상로 모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로 묶인 채 모든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마수걸이한 사람은 동반자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처리해나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 마수걸이를 했습니다. 마음에 담은 것은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며 나가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남편에게 아내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마수걸이한 사람이라면 자녀를 돈을 잘 버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돈과 멀어지는 쪽으로 간다고 여겨지면 문제시합니다. 자녀를 돈으로 이끌기 위해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동원합니다. 이것이 6절에서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라고 말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마수걸이를 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첫 번째로 마수걸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들은 첫 번째 대상과 동반자가 되어서 맞이하게 됩니다. 돈으로 마수걸이를 했다면 돈과 동반자가 됩니다. 승진으로 마수걸이를 했다면 승진이 동반자가 됩니다. 승진이 동반자가 되면 회사 안에서 누구를 만나도 승진만이 관심거리입니다. 승진을 위해서만 사람과 만나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선민이 아닌 악인의 모습입니다. 선민이라도 선민다움을 잃을 때에 악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마수걸이를 하고 나면 자녀문제도 두 번째 대상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신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로 묶인 채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심을 알기에 겸손해집니다.
아내가 자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을지라도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수걸이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첫 번째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이며 선민답지 않은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엎어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마수걸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반자가 아닌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려가는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 아닌 열등감을 느낍니다. 위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생겨나고 지배당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싶으면 교만해지고 못하다 싶으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열등감은 곧 교만의 잠재적 형태입니다. 참 겸손은 하나님을 마수걸이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마수걸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제로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생겨난 겸손이 아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겸손은 일종의 처세에 불과합니다. 교만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좋지 않더라는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겸손하겠다는 것은 처세적 겸손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아닌 방법론적 겸손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스스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교만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과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기에 하나님 마수걸이는 중요합니다.

7~11절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1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첫 번째 대상으로 삼은 것을 경외합니다. 경외는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낌을 갖게 되는 대상입니다. 돈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자녀가 잘 안되면 못 산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승진을 못하면 회사를 다닐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상을 정할 때에는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는 믿음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으로 마수걸이를 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의 문제를 완결시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은 기쁨과 만족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11절에서 말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과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의 문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경제적 문제도 인도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엽게 여기셔서 회사일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마수걸이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선민의 삶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이 세상 것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고 관계의 마수걸이를 하려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관계의 마수걸이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묶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그럴 때에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우실 것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시는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하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의미하는 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 마수걸이를 하지 못해 안달하는 유전죄의 체질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마수걸이함으로써 하나님이 동반자 되셔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관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의 인자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